

2011년도 계육산업 결산

닭고기산업 관련 동물약품시장의 2011년 실태와 2012년 전망



장궁순 전무
바이엘코리아(주)

1. 육계산업의 발전

공식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0년의 육계 도계수수는 7억2천5백만 수 정도로 추산되어 2000년 대비 10년 동안 84%나 증가되었다. 2011년에는 2010년 대비 5% 이상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육계사료 생산량은 2010년 2백만 톤을 넘어서서 10년 전인 2000년 대비 37%의 성장을 보였다. 사료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면 8억 3천만 마리 이상이 생산된 것이다. 사료생산량 증가율과 육계 사육수수 증가율의 차이는 생산성 증가와 개체당 출하 체중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민이 1인당 적어도 일년에 17마리는 먹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노계나 수입 닭고기를 제외한 숫자이니 실제로는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닭고기 산업의 눈부신 발전은 닭고기가 우리 먹거리에서 그 위치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2. 2011년 육계산업과 동물약품 시장

육계산업에 사용되는 동물약품의 종류는 사료공장에서 사용하는 항콕시딕제와 영양제, 농장 차원에서 사용되는 예방용 백신, 영양제, 생균제, 효소제, 소독제, 치료용 항콕시딕제, 내부기생충구제제, 외부기생충구제제, 항생제 등이다.

과거에 사료공장에서 배합사료에 사료효율 개선, 사료섭취량 증가 및 질병 예방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던 항생제는 2011년 7월 1일자로 사용이 금지되었다.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사료 곡물이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루어져 국제 경쟁력에서 불리해지고 있는 국가와 산업 여건에서 아쉬운 대목이기도 하다. 식량과 에너지가 극단적으로 중요해지는 앞으로의 30~50년의 전망으로 볼 때에 더욱 그러하다. 에너지 문제는 기후 온난화와도 관련지어 아주 중요한 이슈임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터이기도 하지 않은가?

육계산업에서 소요되는 동물약품은 전통적으로 육계 사육수수, 산물 가격과 질병 발생 등에 영향을 받는다.

우선 육계 사육 수수가 많아지면 약품의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산물 가격이 좋으면 사양가들이 조금이라도 잘 키워서 수익을 늘리겠다는 의지도 높아져 사양관리에 세심해지고 질병이라도 발생이 되면 즉각적으로 좋은 약품을 선택하여 사용하게 된다.

반면 육계가격이 낮게 형성되면 생산자의 의욕이 저하되어 사양관리나 약품 사용에 관심을 덜 갖게 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 인지상정이다.

다음은 사료가격인데, 사료가격이 인상이 되면 양계농가에서 여유자금 부족으로 약품

사용을 줄이려 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심각한 전염성 질병의 발생이다. 전염병이 발생되면 백신과 소독제 사용량이 늘게 마련이고 때론 영양제의 사용도 늘게 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는 사회적·정치적 관련성까지 더하여 더욱 복잡한 영향을 미쳐서 육계 산업을 뒤흔들 수도 있다.

2011년 육계산업 관련 동물약품시장은 또 다른 큰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우선 사료공장에서 사용하여 왔던 모든 항생제가 7월 1일자로 사용이 중지되었다. 이는 생균제, 면역증강제 등으로 대체되고 있으나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사료공장에서 사용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항콕시딕제와 그 성격상 축종별 구분을 하기 힘든 소독약을 제외한 닭고기 산업용 동물약품 시장은 2011년에 45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3. 2012년의 동물약품시장 전망

2012년 닭고기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요인으로는 유럽연합(유로존)의 경제 불안과 원화 환율의 약세이다.

우선 약세 환율은 수출을 주로 하는 산업은 매우 유리한 입장에 서겠지만 사료곡물 등을 수입에 의존하는 축산업계는 아주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미 그 여파로 인해 사료



사료공장에서 사용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항콕시듐제와 그 성격상 축종별 구분을 하기 힘든 소독약을 제외한 닭고기 산업용 동물약품 시장은 2011년에 45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회사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다.

구제역 발생 여파로 사료 시장이 줄어들어 가뜩이나 힘든 사료회사들은 환율의 영향으로 인한 사료원료가 인상은 설상가상 격이 되고 있다. 이는 결국 닭고기 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더구나 2012년 4월 11일에 있을 총선으로 인해 운신의 폭은 더 더욱 좁아질 터이다.

그런 반면에 외화 강세는 닭고기 수입량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거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조류 인플루엔자나 다른 전염성 질병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닭고기산업용 동물약품은 2011년 대비 7% 정도 늘어난 480억원 정도의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2년의 닭고기 산업과 관련된 동물약품시장은 2011년 7월에 시작된 배합 사료 내 항생제 첨가 금지에 더 하여 또 하나의 큰 변수가 생겼다. 닭고기 산업과 관련한 동물약품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7%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개별 동물약품회사의 입장은 전혀 달라질 것이다.

2011년을 정점으로 닭고기 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축산업이 2개의 대형 계열화 회사에서 이끌고 가는 형태로 재편되어가는 상황이다. 그 두 회사들이 모두 각각 동물약품 회사를 자회사 성격으로 갖추었기 때문이다.

그 회사들이 예방용 백신을 제외한 모든 제제를 갖추고 있으므로 실제 일반 동물약품 회사의 시장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결과가 올 것이다. 장래에 예방백신까지 자체 조달할 경우 육계산업 관련 동물약품 시장은 아주 빠른 속도로 불투명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이렇게 좁아지는 시장에서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이므로 동물약품 회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 닭고기 산업은 그리 매력적이지 않은 산업으로 생각될 가능성이 높다. <K>